

麻浦新聞

2

2019년 5월 13일

전통시장 소화기 개선사업 MOU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영식)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마포구·마포소방서와 전통시장 소화기 가시성 개선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지난달 26일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마포관내 11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4~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마포구가 소화기(ABC, K급)를 지원하고, 공단은 지정위치 부착, 마포소방서는 위치표지판 부착 등을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목적은 전통시장이 대부분이 노후 되어있어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소화기를 매장 앞에 보이도록 설치하여(보이는 소화기) 화재발생 시 누구나 손쉽게 초기진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시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관내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마포구 전통시장 및 사회취약계층의 화재안전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공단 이사장은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공공기관이 나서서 실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며 앞으로도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지역발전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